



## 이땅에 빛을

김 수 환 추기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 개안수술로 시력을 회복하신 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이 은혜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구를 제공하신 고인들에게와 수고해 주신 여러 병원의 선생님들, 간호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안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신 한분 한분에게는 다시금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날이 더할 수 없이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둠에서 광명으로 새로이 태어난 것 같은 감회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것만으로도 200주년에 “이 땅에 빛을”이라는 표어를 내건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는 200주년을 기리면서 여러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작년 5월 교황님을 모시고 가진 103位 순교성인 시성미사는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이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고 무언가로써 특히 사랑의 실천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겨레에게, 특히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과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을”이라는 표어를 내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으로써 어떻게 그 빛을 줄 수 있는지 잘 몰랐을 때 새안수술이 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뜻 깊고 어두움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빛을 주게 되니 명실공히 빛을 밝히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일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병원들을 비롯하여 교회계통 여러 병원에서 적극 협력하여 주시어 순조로이 진행되어, 지난 9월 말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1,136 명이 시술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처음으로 눈을 떴을때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수술의 차례를 기다리며 1년 반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다. ‘주여, 광명을 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라고 나는 기도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 후 내 눈에서 봉대가 제거되는 순간 나는 나를 쓰다듬어 주는 의사 선생님의 흰 손을 보았다.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인간의 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의 고통을 쓰다듬어 주는 인간의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감격으로, 내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를 아껴가며 남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 새로이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새 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옛날에 어떤 聖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중 한 사람이 “그거야 밤이 다 지나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면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해가 뜨면 새 날이지요.”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은 그 말들을 듣고 “다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승께서는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고 반문 하였습니다. 그 성인이 대답하기를,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형제로 보이면, 그때 새 날이 밝아온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눈이 뜨여 누군가가 형제처럼 사랑스럽게 보이면 진정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